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갈라디아서 2:20, 고후 5:7)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 드립니다. 어제가 성탄절이였고, 그저께는 아주 아름다운 성탄절 이브 예배를 성전에서 드렸습니다. 어늘부터는 코로나 pandemic으로 인해서, 뉴욕 연회 감독님의 지팀에 따라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가 언제야 끝이 날수 있는지 참고 견디어야 하는 시기인것 같습니다.

제가 교우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것을 참 좋아 합니다. 항상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는데, 오늘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제가 오는 교우님들과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은 최영 목사님께서 건강이 좋지 않은 관계로, 이러한 기회를 갖게 됬습니다.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교우님들께서 기도하고 계신데 우리가 함께 기도 하는 가운데, 최 목사님이 용기를 가지고 병마와 싸우셔서 곧 완쾌 되실수 있기를 기도 합니다. 저도 아파본 경험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최 목사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계속 치유의 과정을 가실수 있기를 다 같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 입니다. 다음 주일, 우리들이 예배를 통해 다시 만나면, 새해 첫 주일이 되지요.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우리들의 마음의 가짐도 다른 때와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금년 한해, 우리들에게는, 정말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좋은일,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일 –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은, 반대로,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고, 절망 하게 하고, 실망 시켰던 –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 러한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손길도 체험 할수 있었을줄 압니다. 우리를 우리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감사 –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이 가져야할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이,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삶이라 할찌라도 감사 할수 있는 것 – 그것이 신앙임을 다시한번 생각해 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교회 달력에 의해서, 오늘은, “성탄후 첫번째 주일” 입니다. 어제가 성탄절이였는데, 기독교인들은 교회 달력에 의해, “성탄절 기간 – Christmastide”를 지나게 됩니다. 성탄절 기간의 의미는, 우리를 사알하셔서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포기하고 자신을 나추셔서 인간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는 의미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되새겨 보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 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들에게는, 성탄절은 어제 하루에 끊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2주간 계속 이어져 갑니다.

과연 성탄절은 나에게, 그리고 이 인류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성탄절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질문이, 성탄절 기간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질문이에요. 덴마크의 신학자이고 철학자인 소렌 킬레갈드는 성탄절의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사건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인간들이 알지 못했고 생생 할수도 없는 사랑의 이야기 – the most beautiful love story the humankind ever knew.”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그리고 역사가 끊이 날때까지 이런 사랑의 이야기 – love story는 업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 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 하셔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인간이 되신 사건 – 그것이 성탄의 사건 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거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 하셔서 하나님 되시기를 포기 하시고, 인간이 되신 것 입니다. 굉징한 사건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도 위해서지만, 특별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 – 그 의미를 우리들은 되새겨 보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한번 새롭게 되는 renew 가 될수 있기를 소망 합니다.

“Kingdom Within”이라고 하는 책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책의 저자인 John Sanford 박사가, 자기가 자랐던 소년 시절의 경험의 이야기인데, 그는 미국 뉴햄프셔의 농장에서, 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농장에는 100년이 넘게 Sanford 가정에 물을 공급해 주던 Well –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은, 농장의 집을 현대식으로 개조했고, 당연히, 우물 대신에 수도관을 설치 했습니다. 그리고, 우물은 안전을 생각해서, 구멍을 막아버렸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Sanford 박사가 농장을 방문하고, 어린 시절의 그 우물이 궁금해서 막아놨던 우물의 구멍을 열어 보았습니다. 100년이상 물을 공급했던 우물이였기 때문에, 당연히 우물안에 물이 있을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우물 안에는 물이 하나도 없었고, 우물은 다 말라 버렸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 보았는데, 그 우물은, 땅속에 있는 수백개의 아주 가느다란 물줄기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계속 물을 퍼야만 그 속에 물이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 입니다. 많이 물을 우물에서 퍼 낼수록, 더 많은 물이 그 가느다란 물줄기를 타고 우물안에 모여지는 것입니다. 물을 퍼내지 않으면, 그냥 고이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물줄기들이 막혀서 더 이상 물울 우물로 보낼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Sanford박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의 영혼도 이 무물과 같다. 하나님의 생명수가 우미 안에 흘러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이 우물처럼 죽고 말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수가 우리 몸안에 흘러 들어오는 삶 – 나 혼자만의 힘과 재주와 능력으로, 나의 삶을 계획하고, 개척하고 성취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를 나도 내 안에 모셔 드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 – 그런 의미의 말씀 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갈라디아서 2장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들이 시도 바울의 삶을 보며는, 사도 바울은 정말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던 사람이였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는지 알수 있어요. 자기가 당했던 핍박을 설명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1장 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시아에서 내가 당한 고난을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도 바울에게는, 고난과 핍박이 너무나도 심해서, 살 소망까지 잃어버렸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 앞까지 간 것이지요.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으면, 삶까지 포기해야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었는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구해 내셨습니다. 9절과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 합니다. “사망 선교를 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건지실 것을 믿는다.” - 나의 재주와 능력과 힘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 입니다.

**P. 3**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5장 7절의 말씀은, 한국 번역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런데, 영어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We live by faith and not by sight.”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에 의지해서 –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인의 삶의 정의라고 생각 합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만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 까지도 믿고 사는 사람들 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 앞에 많은 먹 구름이 있고, 우리의 시야를 가려도, 그 먹구름 뒤에는 맗고 찬란한 빛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사는 삶 –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 입니다. 지금의 고통은, 나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 입니다. 그 사실로 인해 고통도 감사하며, 그 고통 뒤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찬란한 세상을 바라보며 묵묵히 주어진 삶을 사는 것 – 그것이 신앙의 삶 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즐겨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가 참 믿음”이다. 감사 할줄 아는 사람이 참된 신앙인이다 – 이런 말씀 입니다. 줄겁고 행복 할때도 감사 하지만,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삶의 소망까지도 끊어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 할수 있는 삶이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말씀 입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때, 삶 자체가 “광야를 지나는 것” 으로 비유 할수 있는데, 교우님들 가운데, 광야를 경험해 보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네요. 저도 여러번 광야를 체험 했는데, 제가 연합감리교단 선교부에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다녔던 나라중에 하나가 몽골 입니다. 몽골에, 새로운 선교지 개척을 위해 많이 방문을 했는데, 몽골을 아시다시피 그 넓이가 한반도의 7배, 8배 되는 나라 입니다. 그런데 인구는 300만명이 되지 않는 그런 나라 입니다. 아직도 인구의 반이상은 유목민의 삶을 살고, 계절마다 온 식구들이 가축들과 이동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도시 밖에 나가면, 다 광활한 땅 – 광야와 푸른 하늘 밖에는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앞에는 지평선이 펼쳐지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광야에는, 길도 없고 싸인판도 없어서 지리를 잘 모르면 길을 잃어 버릴수 밖에 없습니다. 보통 60마일 떨어진 도시를 가려면 3-4시간 걸리지요. 그러한 광야를 자주 다니는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landmark – 표시들을 만들어 놓고 길을 찾아 갑니다.

이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들은 어떠한 삶의 표시를 가지고,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가요? 우리 인생의 삶의 표시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도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지에 도달 할수 있다 –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러한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 합니다.

이제 금년 2021년도 다 지나가고,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의 시점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랬듯이, 내년에도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질 것 입니다. 어떠한 삶이 우리들에게 펼쳐질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수 있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벅차고

**P. 4**

감격의 마음으로 우에게 주어지는 새 날을 맞이할수 있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온 교우님들과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

기도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 합니다. 주님께 감사도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금년 한해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 드리고, 언제나 주와 함께 동행하며, 신앙인으로서의 본문을 다 할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 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이니라 내 안에 게신 그리스도 예수가 산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속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